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

지역사회 요인과 미취학 자녀
어머니가 받는 이웃의 지원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 아 영

국문초록

최근 지역사회 및 지역 공동체에 기반하여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이웃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지원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떠한 요인들이 이웃간 지원 행위를 촉진시키는지 규명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관점에서 이웃이 제공하는 지원의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요인을 살펴보려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미취학 아동을 둔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원의 양상은 어떠한지,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PSKC)의 2014년 7차 패널에 응답한 1,527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원의 양상을 살펴보고, 어떠한 지역사회 요인이 이웃으로부터의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원은 척도의 중간값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보적, 정서적, 사교적, 도구적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형태의 지원에 걸쳐 취업 여부와 조부모 거주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조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가구가 같이 거주하는 가구보다 더 많은 지원을 이웃으로부터 받았다.

둘째, 지역사회 제반 환경 중 지역 시설 이용 횟수가 이웃의 지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놀이터, 공원, 도서관 등 지역사회 내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어머니일수록 이웃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 지역사회의 공공 및 문화 시설이 이웃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소 혹은 이웃간 관계망을 형성하는 장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설학습기관의 이용시간이 길수록 어머니가 받은 이웃 지원이 더 많았다. 자녀가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정보 공유가 증가하는 등 자녀를 매개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도시와 농어촌 간 이웃 지원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에 한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이웃으로부터 받았다. 이는 도·농 간 이웃 관계의 차이를 보고한 선행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의 공적 인프라 수준에 따라 사적 인프라인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자녀의 돌봄과 교육 인프라가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이웃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이웃 간 공동체성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을 분담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들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지역사회 관련 변수들을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2차 자료의 한계 상,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이웃의 지원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소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관련 요인과 이웃의 지원

행태 간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을 검증하였으며 지역사회 어떠한 환경적 특성이 이웃의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미취학 자녀, 사회적 지원, 이웃, 지역사회, 지역사회 시설
학 번 : 2017-28730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문제	7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8
제 1 절 이웃의 지원	8
1. 이웃과 이웃 관계	8
2. 사회적 지원	10
제 2 절 이웃의 지원 관련 요인	13
1. 지역 관련 요인	13
(1) 도·농 여부	13
(2) 지역사회 제반 환경	15
(3)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시설	17
2. 개인 관련 요인	18
제 3 장 연구방법	21
제 1 절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21
제 2 절 측정도구	23
제 3 절 분석방법	27
제 4 장 연구결과	28
제 1 절 주요 변수의 전반적 경향	28
제 2 절 지역사회 요인이 이웃의 지원에 미치는 영향	31
제 5 장 결론 및 논의	38
참고문헌	44

표 목 차

<표 3-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2
<표 4-1> 주요변수의 전반적 경향	29
<표 4-2> 측정변수들 간 상관관계	30
<표 4-3> 미취학자녀 어머니가 이웃에게 받는 정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표 4-4> 미취학자녀 어머니가 이웃에게 받는 도구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4
<표 4-5> 미취학자녀 어머니가 이웃에게 받는 사교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5
<표 5-6> 미취학자녀 어머니가 이웃에게 받는 정보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웃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지원의 주요 원천 중 하나지만 가족학 연구에서 이웃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도시화로 인해 이웃간 상호의존과 연대가 감소함과 동시에 돌봄과 부양 문제를 핵가족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가족중심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90년대 후반 이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적 성격의 보육서비스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프거나 긴급한 사정이 생겨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면 가족은 친족의 지원이나 시장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가족 내 소수의 개인이나 시장에 돌봄을 전가할 경우 과도한 양육 부담이 생기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돌봄이 계층화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반면 이웃이 제공하는 지원은 돌봄과 같은 가족 기능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 집합적 효능감, 지역사회 역량과 같은 개념들로 확장되어 궁극적으로 가족친화적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진미정, 2018).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 나 ‘가족품앗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 배경에는 고립된 개인에게 과중하게 집중되는 양육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고, 궁극적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길러 사회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기능을 분담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이웃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며(Chan, 1994), 지지적인 양육 태도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Furstenberg, 1993). 이는 이웃의 지원이 심리적인 완충 효과를 갖는 것과 더불어 양육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감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돌봄을 분담하는 이웃의 지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상과 주제가 한정적이다. 이웃의 지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웃 지원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이웃의 지원은 노인의 “Aging in Place”의 한 요소로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중경, 2012; 배진희, 2004; 이진석, 2010), 우울 증상을 감소시킨다(김은정, 이신영, 2012; 박현식, 2008; 임정연, 김호영, 염유식, 2016). 또한 이웃의 지원은 노인이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박경순, 2015) 및 행복감(이정화, 한경혜, 박공주, 이한기, 2003)과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밝혀졌다.

반면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이 받는 이웃의 지원에 주목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미취학 자녀 어머니가 받는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 혹은 지지를 살펴본 연구는 많으나 대부분 지원 제공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지원의 총량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웃의 지원이 어떠한 수준에서 이뤄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다양한 생태체계 중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돌봄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보육기관, 조부모, 부모의 직장 등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첫째, 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를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이웃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과 관련 개념들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있어 이웃이 제공하는 지원은 보다 직접적인 양육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이웃 관계망, 이웃에 대한 인식, 신뢰와 이웃의 지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특히, 많은 연구가 모든 유형의 지원을 하나의 사회적 지원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은 크게 유·무형으로 구분하거나 정서적, 도구적 지원 외에 사교적 지원이나 정보적 지원, 평가적 지원과 같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의 각 유형마다 특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제공자와의 관계에 따라 주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 또한 달라진다(Wellman & Wortley, 1990). 즉, 이웃을 제공자로 한정할 경우, 친족이나 친구, 동료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의 양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웃이 제공하는 지원이 유형별로 각기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많은 연구들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로 이루어져 이웃 지원의 전반적인 수준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연구들이 아파트의 등장과 전통적 공동체의 상실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환경과 이웃 관계를 연구하였다(김동우, 1985; 김종인, 신용재, 1989; 김현수, 2004; 최성섭, 1994). 이렇게 아파트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 도시의 이웃관계에 대해서 연구가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농어촌을 포함한 연구가 희소해졌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비해 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된다(김은정, 이신영, 2012; 오승환, 2007). 이러한 차이가 미취학자녀를 둔 어머니가 받는 이웃의 지원에도 나타나지는 알 수 없다.

도·농간 이웃 지원의 수준 차이와 이웃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요인을 파악한다면 지역사회 기반의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일-가정 균형을 위해 가족, 이웃과 같은 비공식 자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영리 부문의 이용 수준은 낮으며, 중소도시, 대도시로 갈수록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농어촌에 부족한 공식적, 시장 인프라를 비공식 관계망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다(정지영, 조성은, 2008). 이러한 상황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에게 비공식 자원인 이웃 지원의 도·농의 양상이 나타나는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웃의 지원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를 보면, 이웃의 지원과 같은 사회적 행태는 지역사회의 공간적 특성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Whyte, 1980; Sommer, 1983; Gehl, 1987). 이웃간 면대면 접촉은 공간적 토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Cooley(1909)의 전제를 바탕으로 사회학을 비롯해 환경학, 보건학, 도시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공간과 이웃간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계를 연구해왔다. 예를 들어 놀이터, 공원과 같은 녹지 시설과 커뮤니티 센터, 초등학교와 같은 공공 공간이 접근하기 좋을수록 이웃끼리 더 많이 교류한다(Demir, 2007; Shiness, Glover & Parry, 2004; Sugiyama, Leslie, Giles-Corti,

& Owen, 2008; Rhodes, Brown, & McIntyre, 2006).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수록 이웃과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주고받는다(Kim, Rotondi, Connolly, & Tamim, 2017). 이와 같은 결과는 이웃간 관계가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장소의 안전과 공공성이 보장될수록 이웃간 사회적 관계망이 더 잘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이웃의 지원 행위로 이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공공 시설이나 전반적인 지역의 안전함, 보행 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자녀의 돌봄이나 교육과 관련된 공간이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간이 이웃이 지원 행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주목한 연구가 많지 않다. 아동을 중심으로 한 근린 단위 모델은 Perry (1929)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걸어서 닿을 수 있는 범위의 모델을 오래 전 제시한 바 있다. 70년 전 북미에서 제시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교가 초등 자녀를 둔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시설이라는 점(박소현, 최이명, 서한림, 2015)에서 아동이 가족의 생활 양식에 갖는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2018년 우리나라 만 5세 이하 아동 중 76%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즉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활동 중에서 보육, 교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는 대부분 이웃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은 보육, 교육시설에서 알게 되고(최정선, 2019), 위 장소를 이웃간 교류의 장소로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신연섭, 연태경, 2006). 보육 및 교육시설이 이웃을 알게 되는 매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교류 장소로 선호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보육 및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실제로 이웃의 지원을 촉진시키는지 실증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의 공간적 특성과 이웃 관계에 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찾기 어렵다. 특히, 사회적 지원을 성격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더욱 드물다. 또한 도·농 여부나 지역사회의 전반적 환경과 아동 관련 시설이 어머니가 이웃의 지원을 받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과 지역사회 요인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① 지역사회의 도·농 여부와 ② 지역사회의 안전성이나 지역 시설의 편리성이나 이용횟수와 같은 지역사회 제반 환경 특성, ③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설학습기관과 같은 아동 보육 및 교육시설이 이웃의 지원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도·농 여부, 지역사회 제반 환경 변인(지역사회 안전성, 지역 시설 편리성, 지역 시설 이용횟수),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시설(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과 이웃이 제공하는 지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도·농 여부는 미취학 자녀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지역사회 제반 환경(지역사회 안전성, 지역 시설 편리성, 지역 시설 이용횟수)은 미취학 자녀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시설(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은 미취학 자녀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이웃의 지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기로 한다.

제 1 절 이웃의 지원

1. 이웃과 이웃 관계

이웃은 사전적으로 ‘가까이 사는 집이나 사람’으로 정의된다. 보다 자세한 정의를 살펴보면 Bergel(1975)은 이웃을 “지역적으로 근접하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는 일차적이고 비공식적인 집단이며, 경계는 뚜렷하지 않지만 비교적 작기 때문에 주민상호간에 면식 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Bertrand(1958)는 보다 이웃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이웃을 “공동체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인 지역에 국한되어 상호간에 밀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보았다. 즉 이웃 관계란 지리적으로 근접성을 바탕으로 대면 접촉을 지속하는 이웃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문용갑, 1986).

위 정의들은 공통적으로 이웃을 지리적 근접성과 친밀함을 가진 개인으로 정의한다. 이 중 지리적 근접성과 친밀함을 어떻게 규정하고 측정할 수 있을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옆 단지로 이사를 가도 여전히 이웃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에 답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이 이웃 관계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 고찰했다. 이웃 관계가 성립되기 위한

‘같은 지역사회’라는 범위는 아파트 단지부터 구까지 개인마다 다르게 인식된다(김재윤, 2003; 노신애, 2013; 이원영, 2011). 그러나 자신의 지역사회라고 생각하는 범위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적 범위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김광복, 남진, 2005; 최열, 유숙향, 2005).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도 같은 동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웃 관계가 국한되는 양상을 보였다(김동우, 1985).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녀가 보육기관이나 학교에 다니는 시기의 가족에게 이웃은 단순히 같은 단지나 근처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녀 친구들의 가족이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이원영, 2011). 이를 통해 지리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생애주기와 같은 주민 특성을 고려한 이웃 관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웃 관계는 친밀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웃이 몇 명인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등의 구조적 측면과 이웃과 어떠한 상호작용과 도움을 주고받는지에 관한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August & Rook, 2013). 혹은 실제로 주고받는 사회적 지원 등을 측정하는 현재적 관계와 공동체 의식이나 소속감과 같이 실질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 관계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정유진, 2014). 이 중 이웃이 제공하는 지원은 이웃 관계의 기능적 측면과 동시에 현재적 성격을 띠다고 볼 수 있다. 이웃의 지원은 돌봄을 분담할 수 있는 자원인 동시에 공동체 의식이나 신뢰, 집합적 효능감과 같은 잠재적 자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웃 관계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76년 Cobb(1976)은 정신건강에 대한 관점을 치료가 아닌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는 사회적 지원을 “개인이 사랑 받고, 존중 받으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Dean & Lin(1977)은 물질적, 행동적 지원이 심리적 지원의 다른 형태이며,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서적 지원보다 다른 형태의 지원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도구적, 물질적 지원까지 포함하였다. Schaefer, Coyne, & Lazarus(1981)는 기존의 정서적 지원과 유형(有形)의 원조 외에 정보적 지원을 덧붙였으며 이를 개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개인의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Fischer(1982)는 사교적 지원을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그는 직접 정서적 도움이 되거나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생활을 공유하는 친밀한 교류(companionship)를 사회적 지원에 포함시켰다. 국내 연구의 경우, 김중진(2007)은 정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경제적 지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서비스 지원은 다르게 말하자면 행동적 지원으로 집안의 경조사 시 일손을 덜어주는 등 신체적 과업을 덜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림(2001)은 여성 한부모가 받는 사회적 지원을 살펴보기 위해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을 조사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 결과를 임상에

실제로 적용하는데 도움을 준다(Thoits, 1986). 또한 사회적 지원의 기능적 측면을 세분화하는 것은 사회적 지원의 총량이나 구조적 측면보다 정신건강을 더 잘 예측한다(Revicki & Mitchell, 1990). 이상의 사회적 지원의 정의와 구성 요인들을 종합했을 때, 지원 유형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지원의 개념을 차용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그리고 정보적 지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원의 유형은 제공자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지원자와의 관계와 더 관련된다(Wellman & Wortley, 1990). 지원의 제공자는 크게 친족과 비친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웃은 비친족 제공자에 해당된다. 친족에는 배우자, 양가 부모님, 자녀 그리고 친척 등이 포함되는데,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배우자와 친정 및 시부모가 주요 지원 제공자로 꼽힌다(정유진, 2014).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도구적 지원은 주로 친족에게서 제공된다(이운주, 2010). 이는 다른 유형의 지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신뢰와 유대감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적 지원이나 사교적 지원과 같이 일상적 수준의 지원은 주로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제공된다(Fischer, 1982). 비친족 지원 제공자는 친족만큼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친족에게 기대되는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동시에 각 관계의 특성에 다른 여러 도움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지원의 유형에 따라 행위 자체의 차이 뿐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의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웃이 제공하는 지원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첫번째로 이웃은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일상 공간과 이해 관계를 공유하는

사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물품을 잠시 빌려주거나 장을 같이 보고, 아이를 대신 돌보는 등의 지원 행위는 멀리 사는 친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는 제공할 수 없는 일상적인 종류의 지원이다. 또한 이웃은 친구와 달리 단순히 친분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넘어 공동의 생활 장소와 이해 관계를 공유하는 사이이다. 이것은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과 관련된 교육 정보나 병원이나 센터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웃이 제공하는 지원 중 가장 두드러지는 형태의 지원이 정보적 지원으로(최정선, 2019), 이를 통해 이웃이 단순히 가까이 사는 사람을 넘어 같은 지역사회라는 공통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이웃의 지원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을 넘어 지역 공동체 형성과 이를 통한 사회자본, 집합적 효능감 등의 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특징을 갖는다. 친족, 친구 등의 지원 행위는 개인적인 효용과 유대에서 그치지만 이웃의 지원 행위는 지역 공동체의 초석으로 기능한다. Tönnies(1957; Giuffre, 2013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지역 공동체는 이익사회(gesellschaft)와 달리 전인격적 공동사회(gemeinschaft)로서 비공식적면서도 연대와 응집에 기초하는 성격을 띤다. 즉 지역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웃 관계로부터 파생되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형성된다(정유진, 2014). 구체적으로는 집 밖에 나와 걷고 서서 대화하는 단순한 행위를 거쳐 이웃과의 일상적, 사회적 교류활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한 뒤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애착을 느낌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역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웃의 지원은 개인적 효용을 넘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웃은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친구나 멀리 거주하는 친족이 제공할 수 없는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자녀의 보육 및 교육시설을 비롯한 공통의 공간과 이해 관계를 매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웃의 지원 행위는 친구나 동료와 달리 지역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과 같은 가치 형성의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제 2 절 이웃의 지원 관련 요인

1. 지역 관련 요인

(1) 도·농 여부

지역사회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이라는 집단적인 차이점을 지닌다. 2·3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도시와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어촌의 산업 구조는 인구 이동, 취업 구조, 교육 수준, 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의 차이로 연결된다(Hugo, Champion & Lattes, 2003).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는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이 맺는 이웃 관계에 반영된다.

이웃이 제공하는 지원의 도·농 간 차이에 관한 연구는 노인 대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도·농 의 구조적인 차이에 따른 건강 수준이나 자살률, 삶의 질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이웃의 지원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 이웃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우울이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양정남, 최은정, 김화선, 심정영, 2010; 오승환, 2007; 임정기, 2013). 이러한 결과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공적 인프라를 가까이 거주하는 이웃 공동체로부터 충당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이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원이 도·농 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도·농 간 격차로 인한 가시적인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아동의 부모가 여전히 근로 연령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웃의 비중이 노인보다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다시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분담을 위한 이웃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웃이 제공하는 지원이 과연 노인과 같이 도·농에 따른 명백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일-가정 균형을 위해 가족, 이웃과 같은 비공식 자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영리 부문의 서비스의 이용 수준은 낮으며, 도시 지역의 경우 반대의 양상이 나타난다(정지영, 조성은, 2008). 노인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공적 인프라 대신 사적 관계망을 활용하는 양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더불어 국내 인구의 국내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며 약 50%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가 활용하는 이웃 지원의 수준이 도·농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지원 유형에 따라 장소와 맥락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도·농에 따라 이웃 지원의 수준뿐만 아니라 유형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이웃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원의 양상이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달리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 제반 환경

이웃의 지원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이 집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 공간에서 이웃과 교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지역사회 환경이 이웃의 지원을 촉진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떠한 지역사회 환경이 주민들을 집 밖으로 이끌어 상호작용하기 수월하게 만드는지 살펴보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대부터 주민간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걷기 좋은 동네(walkable neighborhood)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Talen & Koschinsky, 2013). 걷기 좋은 동네란 안전하고 장애물이 적어 보행이 쉬운 것과 동시에 한 지역사회 안에 여러 기능들이 갖춰져 있어 굳이 차를 타고 일상적인 불일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는, 즉 보행을 장려하는 지역 환경을 일컫는다(Lund, 2003). 이러한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은 물건을 사러 혹은 산책하러 집 밖으로 나와 이웃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주고 받을 수 있다.

관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공 및 상업시설의 편의성, 쾌적함이 걷기 좋은 동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내 공공 및 상업시설의 접근성, 편리성과 보행에 필요한 도보, 조명의 유무, 교통사고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걷기 좋은 동네를 구성하는 환경적 요소로 보았다(Cerin, Saelens, Sallis, & Frank, 2006; French et al., 2014). 국내 연구의 경우, 박소현 외(2015)가 전업주부의 보행 활동을 중심으로 어떠한 지역사회 요인이

건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연구자들은 동네에서 장을 볼 수 있는 상업 시설, 초등학교, 대중교통, 공원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심 축으로 보았다.

건기 좋은 동네를 구성하는 환경적 요인들과 이웃의 지원 행위 간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시설의 접근성, 편리성이 높을수록 이웃의 지원 수준도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시설 중 문화 및 놀이 공간의 존재 자체가 미취학 자녀를 둔 이웃간 상호작용의 장소로 이용되어 이웃의 지원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다(차성란, 이해옥, 2011).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기혼 여성들은 주로 단지 및 동네의 놀이터, 공원과 같은 계획공간에서 주로 이웃과 지원을 주고 받는다고 밝혔다(정유진, 2014). 단순히 존재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접근성과 쾌적함이 높을수록 이웃간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이경영, 조영현, 정문기, 2018; 조상현, 2004). 이는 시설의 접근성과 쾌적함 등이 지역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고 이것이 이웃간 교류와 지원 행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 안전이 이웃 지원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인 보행 환경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을 둔 양육자는 지역사회에서 차량으로 인한 위험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느끼며 이러한 지역 환경 인식에 따라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거나 밖에서 이웃과의 교류가 위축되거나 활성화된다(최정선, 2019). 또한 지역사회를 안전하다고 평가할수록 여성이 제공받는 이웃 지원의 수준 또한 높았다(Kim et al., 2017). 이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이웃과 상호작용하며 그 결과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얼마나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이웃과의 지원 행동 수준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3)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 시설

지역 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기관과 같은 자녀 관련 시설 또한 이웃의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erry (1929)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걸어서 닿을 수 있는 범위의 근린 단위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여전히 초등학교는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박소현 외, 2015). 이는 자녀가 이웃 관계의 형성과 지속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정유진, 2014).

실제 교류 공간을 살펴보면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는 대부분 이웃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은 보육, 교육시설에서 알게 되어 정보 공유 등을 주고받는다고 알려져 있다(최정선, 2019).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가구는 이웃 교류 공간 중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과 놀이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연섭, 연태경, 2006). 이를 통해 자녀의 돌봄 및 교육과 관련된 시설이 해당 생애주기의 가족이 이웃과 교류하는 주요 공간으로 지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역의 공공시설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보육 및 교육시설 또한 이웃의 지원이 이뤄지는 장소로 활용되거나 혹은 이웃간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여 지원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보육 및 교육 시설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이웃과 더 많이 교류하게 되는지 실증할 필요가 있다.

2. 개인 관련 요인

사회적 지원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에 따라 지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성별과 사회경제적 수준, 결혼 여부 등이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한신원, 2013; Shumaker & Hill, 1991; Stringhini et al., 2012). 본 연구의 초점에 맞추어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요인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웃의 지원 행위 자체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교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취업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의 차이와 이로 인한 이웃 관계망의 차이가 이웃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이웃간 교류하는 시간은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이웃과 친해지게 된 계기가 비취업모의 경우 집주변이나 놀이시설에서 자주 마주치기 때문인 반면, 취업모는 같은 보육 및 교육 시설이나 공공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최정선, 2019).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의 구성을 비교하면 비취업모는 이웃의 비중이 취업모에 비해 더 높았다(이윤주, 2010; 조혜선, 2004). 실제로 취업모는 이웃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이웃으로부터 정보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황영주, 1997).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이웃의 지원 수준뿐만 아니라 유형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망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원도 증가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Brown, Brown, Miller, & Hansen, 2001; Mickelson & Kubzansky, 2003). 하지만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를 이웃으로 한정할 경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정창수, 문용갑, 1990). 이는 대부분 연구가 이웃 관계와 지원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측정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이웃간 관계 맺음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아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수의 이웃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이웃 관계를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이웃의 지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이웃의 지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본인과 이웃을 포함한 이웃 집단의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Klebanov, Brooks-Gunn, & Duncan, 1994).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지원을 주고받는 이웃들이 모여 있는 지역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동질적이라는 가정과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이웃 집단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이므로 검증 과정에서 제외하되 월 평균 가구 소득과 학력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분석에 투입하고자 한다.

이웃의 지원을 양육 자원으로 본다면 확대가족이나 자녀 수와 같은 가구 특성이 이웃의 지원과 관계 있을 수 있다. Cantor(1979)의 위계적

보상 모형(hierarchical compensatory model)에 따르면 노인은 돌봄 제공자를 선택할 때 가족, 친구나 이웃과 같은 타인, 공적 기관 순의 위계적 선호를 가진다. 본 연구의 대상은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이지만 일정한 돌봄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 이론을 참고한다면 가구 내에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가구원이 존재할 경우 어머니는 이웃이 제공하는 지원에 대한 필요나 선호를 덜 느낄 수 있다. 실제로 가구 내 부모 외의 다른 성인과 함께 생활할 경우, 자녀 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Goldsteen & Ross, 1989). 따라서 조부모와 같이 거주할 경우 이웃간의 지원 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 더불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 자원의 필요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여러 자녀를 매개로 맺은 이웃 관계망을 통해 폭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알고 지내는 이웃의 수도 많아지는데 이는 각각의 자녀마다 이웃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최정선, 2019). 이에 따라 조부모 동거 여부와 자녀 수를 이웃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웃의 지원은 해당 이웃과의 친밀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친밀 정도는 해당 지역에서 같은 이웃들과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정유진, 2014; 정창수, 문용갑, 1990). 갓 이사 온 사람과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이 보유한 이웃 관계망은 다르며, 이에 따라 이웃 지원의 수준이나 유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2차자료의 한계 상 해당 지역사회에서 거주한 기간 대신 해당 자녀가 태어난 뒤의 총 이사 횟수를 대리변수로 삼아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7차(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아동의 성장 단계마다 발생하는 발달 특성과 양육 실태, 정책 요구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조사이다. 한국아동패널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2006년 분만 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 명부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였다.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신생아를 분만한 산모와 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2,150개의 신생아 가구를 패널로 확정하였다. 이 중 1,620명이 7차조사까지 참여하였으며 보호자 설문지 중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 주 4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기혼 상태인 경우의 응답자만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1,527명의 특성은 <표4-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비취업모는 857명으로 56.12%, 취업모는 670명으로 43.88%를 차지한다. 교육수준은 전문대 졸업 이하가 870명으로 전체의 56.97%,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657명으로 43.03%이다. 조부모가 동거하는 경우는 137명(8.97%), 그렇지 않은 경우는 1,390명(91.03%)이며 평균 자녀 수는 2.17명이다.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실수령액인 월평균 가구 소득은 평균 448.73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평균 이사 횟수는 1.62회이다.

<표3-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527)

구분		전체 (N=1,527)
취업 여부	취업	670(43.88)
	비취업	857(56.12)
교육 수준	전문대 졸업 이하	870(56.97)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657(43.03)
조부모 동거 여부	동거	137(8.97)
	비동거	1,390(91.03)
자녀 수(명)	평균(SD)	2.17(.67)
월평균 가구 소득(만원)	평균(SD)	448.73(210.96)
이사 횟수(회)	평균(SD)	1.62(1.51)

제 2 절 측정도구

1. 도·농 여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를 읍·면, 중소도시, 대도시 중 선택하여 응답한 문항이다. 중소도시의 응답 비율이 3.54%로 낮아 읍·면 단위를 0으로 코딩한 뒤 농어촌 지역 변수를, 중소도시와 대도시를 함께 1로 코딩하여 도시 지역 변수를 생성하였다.

2. 지역사회 제반 환경

지역사회 안전성은 치안과 안전사고 두 가지 측면의 안전에 대하여 질문한 척도이다.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는 치안 측면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합니까?”,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는 안전사고 측면(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합니까?”로 구성된 질문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위험’ 1점부터 ‘매우 안전’ 5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살고 있는 동네가 안전함을 의미한다.

지역 시설 편리성과 이용횟수는 지역사회의 실외시설(놀이터, 공원, 산책로)와 실내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영화관, 장난감 대여센터, 도서관) 총9개의 시설에 대한 문항이다. 각각의 시설에 대해 “다음은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을 위한 다음의 시설 이용이 편리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불편함’ 1점부터 ‘매우 편리함’ 5점까지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 이용이 편리함을 의미한다. 지역 시설 편리성은 총 9개 시설에 대한 각 응답의 평균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지역 시설 이용횟수의 경우, 각 시설에 대해 1개월(30일)에 며칠을 이용하는지 연속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모두 더한 단일 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3.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시설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시설은 각각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설학습기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 여부, 주당 이용빈도 및 1일 평균 이용시간을 통해 일 평균 이용시간 값을 각각 산출하여 더한 뒤, 두 값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둘 다 이용하는 3명은 결측 처리한 뒤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사설학습기관의 경우, ‘개인, 그룹 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기관(특기교육학원 또는 보습학원 및 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시간’을 측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기준일은 조사 방문일 하루 전 일상적인 생활을 한 평일이며 활동은 30분 단위로 기록되었다.

4. 개인 변인

취업 여부는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취업 중(휴직 중 포함)’, ‘학업 중(휴학 중 포함)’, ‘취업/학업 병행 중’, ‘비취업/미학업’의 응답

중 ‘학업 중(휴학 중 포함)’, ‘비취업/미학업’을 0으로 코딩하였으며, 나머지 ‘취업 중(휴직 중 포함)’, ‘취업/학업 병행 중’을 1로 코딩하였다. 이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인 “현재 귀하의 취업관련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에 ‘휴직 중’으로 답한 응답자 또한 0으로 코딩하여, 현재 재직 중인 취업모를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3년제 이하 기능대학)’,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대학원 졸업’의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이 총 5명에 그치고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 졸업(3년제 이하 기능대학)’이 각각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에 비해 응답자 수가 적어 ‘무학’부터 ‘전문대 졸업(3년제 이하 기능대학)’까지 0으로 코딩하였으며,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대학원 졸업’을 1로 코딩하였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지난 1년 동안의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 중 세금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이다. 이를 자연로그를 취하여 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 자녀를 포함한 총 자녀 수 또한 개인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조부모 동거 여부는 가구 구성 형태에 대한 질문에 조부모 중 한명이라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1로, 그렇지 않은 가구를 0으로 코딩하였다. 이사 횟수는 조사 아동이 태어난 이후로 이사를 몇 번 했는지 응답한 연속변수이다.

5.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이재림(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사교적 지원, 정보적 지원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3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었다. 정서적 지원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의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는 .884이다. 도구적 지원은 “급하게 돈을 써야할 때 빌려준다”,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의 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Cronbach’s α 는 .859이다. 사교적 지원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서로 집안 길흉사에 방문한다”,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는 .916이다. 정보적 지원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의 2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Cronbach’s α 는 .862이다.

본래 척도는 위와 같은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아동패널은 7차(2014년)부터 “자녀양육 또는 돌봄 등과 같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라는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도구적 지원에 포함시켰다. 새로 추가된 문항이 포함된 도구적 지원의 Cronbach’s α 는 .898로 높은 수준이다. 총 13개의 문항을

친가 식구, 외가 식구, 친구 및 동료, 이웃이 제공하는 지원으로 나누어 각각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 중 이웃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의 각 영역별(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 평균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총 13문항의 Cronbach' s α 는 .971이다.

제 3 절 분석방법

연구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수의 기술통계와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이후 지역사회 요인이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검토하였다. 취업 여부와 교육 및 소득 수준, 자녀 수 및 조부모 동거 여부는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므로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웃을 살펴보는 연구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대한 대리변수로 이사 횟수를 통제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최종표본 추출 과정에서 취업모 가구와 읍·면 소재 가구를 과대표집하여 우선 추출하였다(신나리 외, 2007). 따라서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한 횡단면 가중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과 상관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및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STATA 13을 사용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주요 변수의 전반적 경향

7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요인과 사회적 지원의 전반적 경향은 <표4-1>와 같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참여자는 830명(54.35%), 도시에 거주하는 참여자는 697명(45.65%)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제반 환경 변인 중 지역사회 안전성은 1~5점 척도 중 평균 3.26점으로 나타났다. 총 9개의 실외 및 실내 시설의 편리성은 평균 2.87점이며, 지역 시설 이용횟수의 경우, 월평균 20.87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달 간 20일 동안 지역 시설을 이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9개의 시설 이용 횟수를 합산한 평균값을 의미한다. 즉, 한달 간 9개의 시설을 평균 20.87회 이용하였다는 뜻이다.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6.96시간이며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의 경우 일평균 시간은 .84시간 즉, 50분 가량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사회적 지원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정보적 지원이 평균 3.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지원은 3.03점, 사교적 지원이 2.86점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지원이 2.7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5점 척도임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척도의 중간값 수준의 지원을 이웃으로부터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표4-1> 주요 변수의 전반적 경향(N=1,527)

구분		전체 (N=1,527)
도·농 여부	농어촌	830(54.35)
	도시	697(45.65)
지역사회 제반 환경	지역사회 안전성(1~5)	3.26(.79)
	지역 시설 편리성(1~5)	2.87(.81)
	지역 시설 이용횟수(회/월)	20.87(16.84)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	6.96(1.61)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 기관(시간/일)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	.84(.76)
	정서적 지원	3.03(1.04)
사회적 지원(1~5)	도구적 지원	2.78(1.16)
	사교적 지원	2.86(1.03)
	정보적 지원	3.12(1.04)

<표 4-2> 측정변수들 간 상관관계 (N=1,527)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지역사회 안전성	-											
2. 지역 시설 폐리성	.47***	-										
3. 지역 시설 이용횟수	.22***	.36***	-									
4.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	-.05	-.07**	.10***	-								
5.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	.05*	.06**	-.03	.25***	-							
6. 월평균 가구 소득	.17***	.22***	.04	-.02	.11***	-						
7. 자녀 수	-.02	-.02	-.05*	.05*	.09***	-.05*	-					
8. 이사 횟수	.04	.05	.06*	-.02	-.03	.03	-.05*	-				
9. 정서적 지원	.07**	.05*	.09***	-.01	.08***	-.05*	.01	-.00	-			
10. 도구적 지원	.06*	.05*	.12***	-.02	.07**	-.04	.02	.01	.80***	-		
11. 사교적 지원	.06*	.03	.08***	-.01	.06*	-.02	.02	.01	.87***	.83***	-	
12. 정보적 지원	.06*	.06*	.10***	-.03	.07**	-.04	.01	.02	.84***	.80***	.87***	-

*p<.05, **p<.01, ***p<.001

제 2 절 지역사회 요인이 이웃의 지원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요인이 사회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IF는 1.80으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보고되지 않았다. 사회적 지원 중 정서적 지원과 지역사회 요인간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4-3>에 제시되어 있다.

도시에 거주할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이웃으로부터 적은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beta = -.17, p < .01$). 지역사회 제반 환경 변인 중 안전성과 시설 편리성은 정서적 지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지역사회 시설 이용횟수는 정서적 지원과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다($\beta = .02, p < .05$).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시설은 모두 정서적 지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이 길수록($\beta = .02, p < .05$), 그리고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이 길수록($\beta = .12, p < .01$)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변인 중 취업 여부, 조부모 동거 여부와 교육수준이 정서적 지원과 유의한 관계에 있었다. 취업모일 경우($\beta = -.37, p < .001$),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beta = -.12, p < .05$),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beta = -.39, p < .001$) 이웃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의 수준이 낮았다. 반면 자녀 수와 월평균 가구 소득, 이사 횟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4-3〉 미취학자녀 어머니가 이웃에게 받는 정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N=1,527)

구분		β (S.E.)	
도·농 여부	도시	-.17(.06)**	
지역사회 제반 환경	지역사회 안전성	.05(.04)	
	지역 시설 편리성	.01(.04)	
	지역 시설 이용횟수	.02(.01)*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기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	.02(.02)*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	.12(.04)**	
개인 변인	취업 여부	취업	-.33(.06)***
	교육수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2(.06)*
	조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10)***
	자녀 수		-.00(.05)
	월평균 가구 소득		-.02(.06)
	이사 횟수		.02(.02)
	절편		2.58***
R ²		.08	
F		8.64***	

1) *p<.05, **p<.01, ***p<.001

2) 기준집단: 도·농 여부-농어촌, 취업 여부-비취업, 교육수준-전문대 졸업 이하, 조부모 동거 여부-비동거

지역사회 요인이 도구적 지원에 미치는 결과는 <표4-4>에 제시되어 있다. 도시에 거주할 경우 농어촌에 비해 이웃으로부터의 받은 도구적 지원 수준이 더 낮았다($\beta = -.13, p < .05$). 지역사회 제반 환경 변인 중 지역 시설 이용횟수가 도구적 지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지역 시설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이웃으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수준이 더 높았다($\beta = .03, p < .01$).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시설 모두 도구적 지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서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이 길수록($\beta = .05, p < .01$),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이 길수록($\beta = .12, p < .01$) 어머니는 이웃으로부터 많은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

개인 변인 또한 정서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취업 여부, 교육수준, 조부모 동거 여부가 도구적 지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취업모일 경우($\beta = -.42, p < .001$),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beta = -.14, p < .05$),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beta = -.40, p < .001$) 이웃으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덜 받았다. 자녀 수와 월평균 가구 소득, 이사 횟수는 도구적 지원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표4-4〉 미취학자녀 어머니가 이웃에게 받는 도구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527)

구분		β (S.E.)
도·농 여부	도시	-.13(.06)*
지역사회 제반 환경	지역사회 안전성	.02(.04)
	지역 시설 편리성	.03(.05)
	지역 시설 이용횟수	.03(.01)**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기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	.05(.02)**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	.12(.05)**
개인 변인	취업 여부	-.42(.07)***
	교육수준	-.14(.07)*
	조부모 동거 여부	-.40(.11)***
	자녀 수	.01(.05)
	월평균 가구 소득	.06(.07)
	이사 횟수	.03(.02)
절편		2.28***
R ²		.08
F		7.31***

1) *p<.05, **p<.01, ***p<.001

2) 기준집단: 도·농 여부-농어촌, 취업 여부-비취업, 교육수준-전문대 졸업 이하, 조부모 동거 여부-비동거

지역사회 관련 요인이 사교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은 <표4-5>에 제시되어 있다.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도·농 여부는 사교적 지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지역사회 제반 환경 변인 중 지역 시설을 많이 이용할수록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더 많은 사교적 지원을 받았다($\beta = .02, p < .01$). 지역사회 안전성과 지역 시설 편리성은 사교적 지원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시설은 위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교적 지원과 유의한 관계를 맺었다.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간이 길수록($\beta = .05, p < .01$), 그리고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이 길수록($\beta = .10, p < .05$)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더 많은 사교적 지원을 받았다. 개인 변인 중 취업모일 경우($\beta = -.32, p < .001$),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beta = -.40, p < .001$), 주변 이웃으로부터 사교적 지원을 덜 받았다. 교육 수준과 자녀 수, 월평균 가구 소득, 이사 횟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5> 미취학자녀 어머니가 이웃에게 받는 사교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N=1,527)

구분		β (S.E.)
도·농 여부	도시	-.09(.06)
지역사회 제반 환경	지역사회 안전성	.03(.04)
	지역 시설 편리성	-.02(.04)
	지역 시설 이용횟수	.02(.01)**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기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	.05(.02)**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	.10(.04)*
개인 변인	취업 여부	-.32(.06)***
		-.33(.06)***

	교육수준	-.11(.06)	-.12(.06)*
	조부모 동거 여부	-.40(.11)***	-.44(.10)***
	자녀 수		.01(.02)
	월평균 가구 소득		.12(.06)
	이사 횟수		.03(.02)
	절편		2.44***
	R ²		.07
	F		5.68***

1) *p<.05, **p<.01, ***p<.001

2) 기준집단: 도·농 여부-농어촌, 취업 여부-비취업, 교육수준-전문대 졸업 이하, 조부모 동거 여부-비동거

지역사회 요인이 정보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결과는 <표4-6>와 같다. 도·농 여부는 정보적 지원과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 지역사회 제반 환경 변인 중 유일하게 지역 시설 이용횟수만이 정보적 지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02, p < .01$). 어머니가 지역의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수록 이웃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적 지원을 얻었다.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시설은 모두 정보적 지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간이 길수록($\beta = .06, p < .01$), 그리고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이 길수록($\beta = .10, p < .05$)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정보적 지원이 늘어났다. 개인 변인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취업모일 경우($\beta = -.41, p < .001$),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beta = -.36, p < .001$) 주변 이웃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적 지원을 받았다. 교육 수준과 자녀 수, 월평균 가구 소득, 이사 횟수는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표4-6> 미취학자녀 어머니가 이웃에게 받는 정보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N=1,527)

구분		β (S.E.)
도·농 여부	도시	-.08(.06)
지역사회 제반 환경	지역사회 안전성	.02(.04)
	지역 시설 편리성	-.04(.04)
	지역 시설 이용횟수	.02(.01)**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기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	.05(.02)**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	.10(.04)*
개인 변인	취업 여부	-.41(.06)***
	교육수준	-.12(.06)
	조부모 동거 여부	-.36(.11)***
	자녀 수	.10(.06)
	월평균 가구 소득	-.02(.05)
	이사 횟수	.03(.02)
절편		2.72***
R ²		.08
F		7.30***

1) *p<.05, **p<.01, ***p<.001

2) 기준집단: 도·농 여부-농어촌, 취업 여부-비취업, 교육수준-전문대 졸업 이하, 조부모 동거 여부-비동거

제 5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가 받는 이웃의 지원과 지역사회 요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 2014년 7차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1,527명의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원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웃과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시화로 인해 이웃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적 지원이 3.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지원이 3.03점, 사교적 지원이 2.86점, 도구적 지원은 2.78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점점 자라 초등학교 진학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교육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이 중요한 이웃간 지원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도구적 지원은 대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형태의 지원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형태의 지원에 걸쳐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조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가구가 같이 거주하는 가구보다 더 많은 지원을 이웃으로부터 받았다.

연구문제 1인 도·농 여부가 이웃의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에 한해 도·농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도시보다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가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지원 유형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각 지원 유형의 문항을 살펴보면 정보적 및 사교적 지원은 자녀 교육이나 살림살이에 관한 정보 제공, 길흉사에 방문하거나 같이 장을 보는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원인 반면, 정서적 및 도구적 지원은 외로울 때 의지하거나 금전 대여 등 보다 깊은 수준의 친밀감을 매개로 하는 문항들을 포함한다. 도시와 농촌 간 이웃 관계를 맺는 방식과 이웃이 갖는 의미가 상이하다는 선행연구(Nation, Fortney, & Wandersman, 2010)를 참고하면 각 지원 유형이 갖는 성격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연구문제 2인 지역사회 관련 요인과 이웃의 지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역 시설 이용횟수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이 공통적으로 이웃의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되었다. 지역사회의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수록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원 수준이 높았다. 공원이나 놀이터와 같은 공공 공간이 이웃간 상호작용의 주요 장소로 이용된다는 선행연구결과(정유진, 2014; 최정선, 2019)를 참고하면 공공 및 문화 시설이 지원 행위를 비롯한 이웃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안전함과 지역 내 시설의 편리함이 이웃간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는 선행연구(이경영 외, 2018; 조상현, 2004; 최정선, 2019; Kim et al., 2017)와 달리 지역사회의 안전성과 지역 시설의 편리함은 이웃 지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의 연령, 성별, 가구 구성의 상이함과 척도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 안전함의 경우 이경영

외(2018)는 범죄, 교통 관련 안전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나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등 보다 넓은 의미의 척도를 사용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 조상현(2004)은 접근성이나 편리함의 정량적 지표를 측정 및 분석하여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평가를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문제 3인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 시설 이용시간과 이웃의 지원 간의 관계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더 오랜 시간 이용할수록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 또한 자녀가 학원과 같은 사설학습기관을 더 많은 시간 이용할수록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원이 많았다. 즉, 어머니의 이웃 지원 행태의 상당수가 자녀의 돌봄과 교육을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 및 교육 시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해당 시설과 그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원 형태 중 정보적 지원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방증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변인 중 취업 여부와 조부모 동거 여부가 모든 형태의 지원에 걸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이웃의 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의 사회관계망 중 이웃의 비중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윤주, 2010; 조혜선, 2004). 그간 이웃 관계를 조명한 선행연구 중 분석되지 않았던 조부모 동거 여부 또한 이웃의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새롭게 검증되었다.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이웃으로부터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받았다. 이는 Cantor(1979)의 위계적 보상 모형에 따르면 이미 가족 내에 이용 가능한 양육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을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시설을 많이 이용할수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이 길수록 이웃의 지원 수준 또한 높았다. 그리고 이웃의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은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원은 지역사회의 시설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동시에 도·농 간 이웃 지원 양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여성의 이웃간 사회적 지원에 관해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이웃 간 공동체성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을 분담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들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웃의 지원이 모두에게 같은 수준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개인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돌봄을 분담하는 정책들이 개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웃의 지원을 보완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웃 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다시 이웃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웃의 지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 나 ‘가족품앗이’의 주

이용 대상은 전업주부로 알려져 있다(차성란, 권혜진, 조정현, 2011). 이는 품앗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대부분 취업모의 근무시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취업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웃의 지원을 받는다는 본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취업모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를 다양하게 하고, 비취업모와 취업모가 서로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활동을 확대하기를 제언한다. 이를 통해 취업 여부에 따른 이웃 지원의 격차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역 관련 요인들은 모두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변인이다. 통제하지 못한 개인 변인으로 인해 주관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반면 지역 수준의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할 경우, 지역사회와 이웃간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웃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수준의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나 그보다 더 작은 동네 단위의 통계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되어있는 동 단위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향후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수집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요인이 양육 요구를 지닌 가족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용적인 정책 제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활용한 2차 자료인 한국아동패널(PSKC) 조사 자료의 한계 상 이웃의 지원 행태와 지역사회 특성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 지역사회 시설 이용횟수나 안전성이 이웃의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이웃의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시키지 못하거나 부분적인 정보만 제공하였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주로 이웃과 상호작용하는 공간 중 하나로 민간놀이센터 등이 꼽혔으며(최정선, 2019), 지역 내 상업시설의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이웃간 상호작용의 주요 예측변수로 제시된다(Cerin et al., 2006; French et al., 2014). 그러나 본 연구는 상업시설 중 영화관, 장난감 대여센터만 지역사회 시설에 포함하였다. 자녀의 사설학습기관 이용시간이 한 학원을 긴 시간 이용하는지 혹은 여러 학원을 이용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해석에 제한이 따른다.

셋째, 지역사회 내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웃과 사회적 지원을 주고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어떠한 장소와 행동 맥락에서 지원 행태가 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거주하는 지역의 단위나 지역사회 시설 이용횟수, 보육 및 교육 시설 이용시간은 이웃의 지원 행태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하나 더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혹은 생활시간조사와 같은 시간 자료, GPS 자료 혹은 Google View와 같은 위성 이미지와 결합한 자료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역사회와 이웃 지원 행태의 관계를 밝히기를 기대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필두로 2019년에는 곡성군, 거제시, 춘천시 등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는 등 지역사회 기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마을공동체와 지자체에서 성과주의와 관료주의가 지적됨에 따라 ‘바텀업’, 즉 자연스러운 이웃 관계에서부터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웃간 자생적인 교류와 사회적 지원을 촉진시키는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학문적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관련 요인과 이웃의 지원 간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을 검증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어떠한 환경적 특성이 이웃의 지원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김광복, 남진(2005). 주택재개발아파트의 단지배치특성에 따른 임대주택거주자의 커뮤니티의식 분석. 국토계획, 40(7), 73-86.
- 김동우(1985). 대단위 아파트지역의 이웃관계에 관한 연구: 현대, 한양, 잠실, 반포 및 암사동 시영아파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김소영(2017). 지역사회 가족친화성과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 양립 갈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4), 157-172.
- 김은정, 이신영(2012). 농촌 노인의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사회적 지원과 우울성향: 도시 노인과의 비교. 사회과학연구, 28(2), 149-176.
- 김재윤(2003). 거주자 생활영역 인식조사를 통한 근린생활권에 관한 연구: 분당 신도시를 사례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김종경(2012).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활동에 따른 삶의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구.
- 김종인, 신용재(1989). 아파트 주부의 이웃관계: 생활수준에 의한 비교를 중심으로. 대학건축학회논문집, 5(1), 15-19.
- 김중진(2007). 한국의 사회연결망이 사회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적 실천의 함의.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인천.
- 김현수(2004). 편복도형 고층아파트 거주민의 이웃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광주.
- 노신애(2013). 지역사회 범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가족친화성 평가: 서울시 거주 미취학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279-294.
- 문용갑(1986). 대도시주민의 이웃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석.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박경순(2015). 사회적 배제가 농촌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정책, 42(4), 231-253.

- 박소현, 최이명, 서한림(2015). 동네 걷기 동네 계획: 걸어서 좋은 동네, 걷기가 좋은 동네. 서울: 공간 서가.
- 박현식(2008). 사회적 지지와 우울이 노인의 사기(morale)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4, 49-68.
- 배진희(2004).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자녀와 이웃지원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197-216.
- 신연섭, 연태경(2006). 가족생활주기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거주자 요구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6), 57-64.
- 양정남, 최은정, 김화선, 심정영(2010).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노인차별경험의 영향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4, 207-229.
- 오승환(2007). 노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소도시·농촌·어촌지역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3, 209-231.
- 유재언(2013).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영유아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25개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63-79.
- 이경영, 조영현, 정문기(2018).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이 이웃관계를 매개로 하여 지역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2(4), 93-121.
- 이원영(2011). 국민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체시설 현황 및 발전방안.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이윤주(2010). 취업 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사회자본 특성. 한국인구학, 34(2), 91-111.
- 이정화, 한경혜, 박공주, 이한기(2003).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지원망 특성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9(3), 1-7.
- 이재림(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이진석(2010).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 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경산.
- 임정기(2013).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8, 217-240.
- 임정연, 김호영, 염유식(2016). 관계유형별 사회적 지지와 갈등이 노인 의 우울과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3), 645-657.
- 정유진(2014).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생애주기단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정지영, 조성은(2008).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21-39.
- 정창수, 문용갑(1990). 대도시 주민들의 이웃관계와 그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 서울의 8개 주거지역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학*, 23(SUM), 171-189.
- 조상현(2004). 아파트단지 외부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근린의식 형성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 조혜선(2004). 조기교육과 어머니 역할. *한국여성학*, 20(1), 123-161.
- 진미정(2018). 가족정책 관점에서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개념화. *한국가족복지학*, 23(2), 337-361.
- 차성란, 이해욱(2011). 가족친화마을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아파트 내외부 및 근린환경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45-62.
- 최성섭(1994). 초고층아파트단지에서의 거주 의식과 이웃관계에 관한 연구: 주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광주.
- 최열, 유숙향(2005). 대도시 주변 소도읍의 근린범위 인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0(7), 185-196.
- 최정선(2019). 주거지역 근린양육환경 사례 연구: 미취학모의 양육활동 및 양육환경인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한신원(2013). 사회적 지지의 사회인구학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14(1), 7-40.

- 황영주(1997).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사회적지지가 자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August K.J., Rook K.S. (2013) Social relationships. In M. D. Gellman, & J. R. Turner (Eds.) *Encyclopedia of behavioral medicine*. New York, NY: Springer
- Bertrand, A. L. (1958). *Rural sociology: An analysis of contemporary rural life*. New York, NY: McGraw Hill.
- Bergel, E. (1975). *Urban sociology*. New York, NY: McGraw Hill.
- Brown, P. R., Brown, W. J., Miller, Y. D., & Hansen, V. (2001). Perceived constraints and social support for active leisure amo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Leisure Sciences*, 23(3), 131–144.
- Cantor, M. H. (1979). Neighbors and friends: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1(4), 434–463.
- Cerin, E., Saelens, B.E., Sallis, J. F., & Frank, L. D. (2006). Neighborhood environment walkability scale: Validity and development of a short form. *Medicine & Science in Sports & Exercise*, 38(9), 1682–1691.
- Chan, Y. C. (1994).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mothers who physically abuse their children in Hong Kong. *Child Abuse & Neglect*, 18(3), 261–269.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oley, C. H. (1909). *Social organization: A study of the larger mind*. New York, NY: Charles Scribner's Sons.
- Dean, A., & Lin, N. (1977).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5(6), 403–417.

- Demir, E. (2007). The influences of site design on physical activity and social interaction in residential planned unit developments (PhD dissertation). North Carolina University, Chapel Hill, NC, USA.
- Fischer, C. S. (1982). *To dwell among friends: Personal networks in town and ci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ench, S., Wood, L., Foster, S. A., Giles–Corti, B., Frank, L., & Learnihan, V. (2014). Sense of community and its association with the neighborhood built environment. *Environment and Behavior*, 46(6), 677–697.
- Gehl, J. (1987). *Life between buildings: Using public space* (J. Koch, Trans.). New York, NY: Van Nostrand Reinhold.
- Giuffre, K. (2013). *Communities and networks: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to rethink urban and community studies*. Cambridge, UK: Polity Press
- Goldsteen, K., & Ross, C. E. (1989). The perceived burden of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 10, 504–526.
- Hugo, G., Champion, A., & Lattes, A. (2003).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of settlements for demograph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9(2), 277–297.
- Kim, T, H, M., Rotondi, M., Connolly, J., & Tamim, H. (2017). Characteristics of social support among teenage, optimal age, and advanced age women in Canada: An analysis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21(6), 1417–1427.
- Klebanov, P. K., Brooks–Gunn, J., & Duncan, G. J. (1994). Does neighborhood and family poverty affect mothers' parenting,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2), 441–455.

- Lund, H. (2003). Testing the claims of new urbanism: Local access, pedestrian travel, and neighboring behavior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9(4), 414–429.
- Mickelson, K. D., Kubzansky, L. D. (2003). Social distribution of social support: The mediating role of life ev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265–281.
- Nation, M., Fortney, T., & Wandersman, A. (2010). Race, place, and neighboring: Social ties among neighbors in urban, suburban, and rural contexts. *Environment and Behavior*, 42(5), 581–596.
- Revicki, D. A., & Mitchell, J. P. (1990). Strain,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rural elderly individual. *Journal of Gerontology*, 45(6), S267–S274.
- Rhodes, R. E., Brown, S. G., & McIntyre, C. A. (2006). Integrating the perceived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when predicting walking in a Canadian adult sample.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21(2), 110–118.
- Schaefer, C., Coyne, J. C., & Lazarus, R. S. (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4), 381–406.
- Shinew, K. J., Glover, T. D., & Parry, D. C. (2004). Leisure spaces as potential sites for interracial interaction community gardens in urban area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3), 336–355.
- Shumaker, S. A., Hill, D. R. (1991).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nd physical health. *Health Psychology*, 10(2), 102–111.
- Sommer, R. (1983). Social design: Creating buildings with people in

- min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tringhini, S., Berkman, L., Dugravot, A., Ferrie, J. E., Marmot, M., Kivimaki, M., & Singh–Manoux, A. (2012). Socioeconomic status, structural and functional measures of social support, and mortality: The British Whitehall II cohort study, 1985–2009.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75(12), 1275–1283.
- Sugiyama, T., Leslie, E., Giles–Corti, B., & Owen, N. (2009). Associations of neighbourhood greenness wi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Do walking, social coherence and local social interaction explain the relationships?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62: e9.
- Talen, E., & Koschinsky, J. (2013). The walkable neighborhood: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Land Use and Urban Planning*, 1(1), 42–63.
- Wellman, B., & Wortley, S. (1990). Different strokes from different folks: Community ties and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 558–588.
- Whyte, W. H. (198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Washington, DC: Conservation Foundation.

Abstract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support of neighbors for mother with preschool aged child

Ah-yeong Kim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neighbor's support of mothers with preschool aged child. In this study, 1,527 respondents to the 7th panel of the Korea Children's Panel (PSKC) were examined. This study analyzed which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ffected emotional, instrumental, sociable and informational support from neighbor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research question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pport received from their neighbors was found to be about the median value of the scale. By type of support, informational, emotional, sociable, and instrumental support was shown in order. Non-employed mothers and mothers who don't live with parents or parents-in-law received relatively more support from neighbors.

Second, use frequency of local facilities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neighbor's support. The more mothers use the local facilities

such as playgrounds, parks and libraries, the more support they received from their neighbors. Public and cultural facilities in the neighborhood work as a place where it forms a network of neighbors and exchange support.

Third, the hours at daycare centers, kindergartens and private learning institution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neighbor's support their mothers receiv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mothers received the support from neighbors for the information of facilities and education as their children spend more time at those facilities.

Fourth, the difference in neighbor's support between cities and rural areas was partially significant. For emotional and instrumental support only, mothers living in rural areas received higher levels of support from their neighbors than mothers living in citie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is study used subjective measurement. This study also did not identify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neighbor's support. Nevertheless, the findings are meaningful by shedding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factors and neighbors' suppor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preschool aged child.

Keywords : Neighbors, Neighborhood, Neighborhood Facilities, Preschool Aged Child, Social Support
Student Number : 2017-28730